

2020년 3월 30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막 12:28-34).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친애하는 동역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적인 큰 위기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사명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원중 가족의 사역 보고 및 기도 제목을 알려드립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와 일본의 상황

일본도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외출을 금하거나 학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설의 문을 닫게 한 여타 다른 나라들의 상황에 비하면 상당히 온건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계심과 두려움도 그리 크지 않은 듯 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일본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일본은 불과 일주일전만 하더라도 오는 7월에 열릴 도쿄 올림픽을 정상적으로 개최할 것을 호언장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유럽과 미국에 코로나 19가 들불처럼 번지고 몇몇 국가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올해 올림픽이 열릴 경우 불참을 선언하자 갑작스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즉,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 19를 경계하기 위해 갖가지 방역 조치를 취하는 동안 일본은 올림픽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교적 정상으로 인식하던 것을 비상 상태로 의식이 전환되기까지는 특단의 조치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방역 대책이 한국이나 미국과는 대단히 다릅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되는 것이 검사수가 적다는 것인데, 실제로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3월 30일 일본의 후생노동성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공항검역, 해외 귀국자 포함해서 검사를 실시한 것은 28,966건에 불과하고 그 중에 확진자가 1866명입니다. 그중에서도 인구대비 검사에 가장 인색한 지역이 가장 인구가 많고 밀집된 도쿄라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검사를 받기 위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37.5도 이상의 고온이 4일 이상 지속되고 강한 권태감과 호흡곤란을 느껴야 전화 상담에 응해 줍니다. 전화 상담후 필요성이 인정받아야 검사를 해 주는 것이지요. 즉 상당히 중증 상태가 아니고서는 상담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령자와 기초질환이 있는 이들은 이것이 2일로 단축되는 정도의 차이만 있습니다.

시무라켄(志村けん)이라는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이 코로나 19로 어제 세상을 떠난 사실이 오늘 알려져서 일본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70세의 고령이기는 했지만 왕성하게 활동을 할 정도로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 역시 증상을 보인 이후로 입원까지 4일, 코로나 19의 검사를 받은 것은 그로부터 3일이 더 지나서였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었기에 이 사람의 갑작스런 죽음이 이 질병이 일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벌써부터 이 코로나 19가 발생한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혐오와 가짜 뉴스가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환자들이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되었고, 어떤 이들에게 감염이 되었을 지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또 현재의 방역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는 극히 미비해 보입니다. 언론은 여전히 현재 아베 정권의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비판하는 전문가에 대해서는 본질과 상관없는 공격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19의 만연과 이에 대한 대응 자체가 현재 일본 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즉, 문제에 대한 불투명성, 전문가집단의 폐쇄성과 권력과의 결탁. 그리고 현재의 불의한 상황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민주적인 시민 세력의 약화입니다. 이를 요약하자면 일본 사회의 우경화와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복음 전도 및 선교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2. 기독교대학 사역의 가능성

일본 사회의 우경화와 민주주의의 후퇴가 복음 선교와 관련이 깊은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 일본이 일으켰던 침략 전쟁을 예로 들겠습니다. 일본이 우경화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은 과거의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잘못으로 인지하지 않거나 혹은 불가피한 것, 심지어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는 역사의식을 가진 이들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기독교회는 과거 전쟁에 대한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며,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 복음의 역사의식과 반대되는 생각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인터넷 우익 사이에서 기독교인들이 좌익 사상과 같이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의 우경화는 복음의 양심적 증언에 귀를 막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이 시대에 일본의 기독교 대학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대학은 합리성과 지성이 중요한 곳이며, 거기에 기독교 대학은 기독교적 정신과 역사의식이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간 기독교대학인 도시샤대학에서 두 과목을 가르치면서 일본 선교에 기독교대학의 중요성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째, 기독교대학에서 학생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더 수용적인 자세를 갖게 됩니다. 자신들의 대학이 어떤 이념과 정신에 의해서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일본의 교회가 고령화 되어가면서 다음 세대에 전도를 하기가 더 어렵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대학은 학생들에게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끔 자극을 주고 교회와의 접점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셋째, 복음의 양심적 증언으로서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 전쟁에 대한 반대와 평화를 위한 노력, 민주적인 시민 의식의 교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복음이 더욱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을 만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바라보는 가능성일 뿐, 실제 상황은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기독교 대학이라 하더라도 극심한 경쟁 속에 존속을 위해서는 경영을 생각해야 하고 그로 인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기독교 과목이나 전임 교원을 축소시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루어져야 하는 인격적인 교육보다는 요식 행위로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원중 선교사가 일본의 기독교 대학에서 그러한 교육과 연구의 기회를 갖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 교토남부교회(京都南部教会)사역 시작



이원중 선교사의 교수 비자가 만료되면서 재류자격을 선교사로 다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도시사대학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지속하면서 선교사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가족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신 교회가 재일대한기독교회 교토남부교회였습니다.

교토남부교회는 1928년 교토역의 남쪽, 당시 조선인 밀집지역에 창립되었다가 1941년 황선이 목사, 김재술 장로, 옥문석 신학생 등이 교회에서 민족 의식을 고취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당하고 교회는 강제 해산되었던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 뜻있는 분들의 기도 가운데 다시 재건되어서 이제까지 내려오는 교회입니다. 교토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재적 인원 100여명의 교회이며, 허백기 목사가 부임하신 이후로 매주 목요일 '어린이 식당'을 열어 지역 가난한 어린이들을 섬기고 지역 사회의 소통과 협력의 장을 제공하는 사역 또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은 많고 다양한 반면, 이를 위한 일손은 부족하던 차에 이원중, 안미연 부부에게 협력 사역을 제안하여 주셨고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응하였습니다. 또 저희 가족의 비자 문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3년간의 선교사 비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교회 학교 청소년 학생들, 그리고 장년부의 성경 공부를 인도하며 월 1~2회의 주일 예배 설교와 교회의 행정 사무 등에도 협력하게 됩니다. 재일교포가 중심인 교회이기에 주 사역은 일본어로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만남과 사역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큼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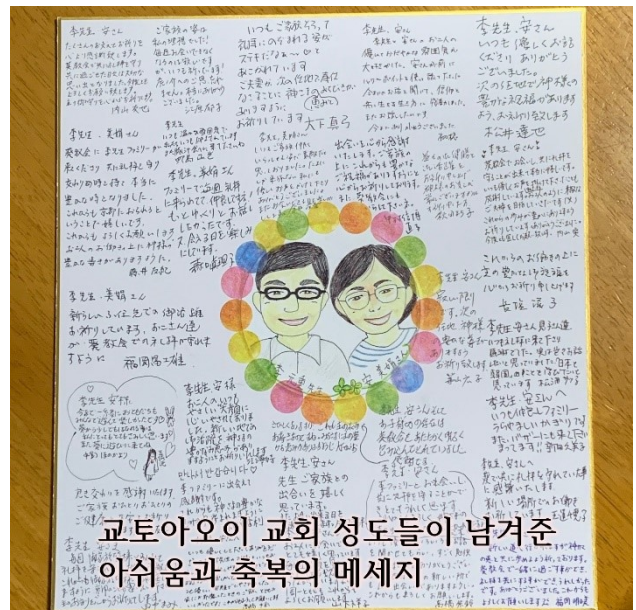
4. 교토아오이교회(京都葵教会)와의 작별

교토남부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까지 저희가 출석하며 섬기던 교토아오이교회와는 작별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아오이교회는 저희가 처음으로 경험한 일본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매주 일본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일본인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운영하는지 배울 수 있는 새롭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아오이교회는 교인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가진 능력으로 이웃들을 성실히 섬기는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때문일까 노년층은 물론이고 아이들과 청년 및 장년들도 고루게 교회에 소속되어 섬기는 가족 같은 교회였습니다. 낯선 저희들 역시 따뜻하게 맞아 주셨고, 저희 부부가 떠나는 때에도 눈물로 서운함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지용이와 지민이도 우선 이 교회에 계속 출석하면서 서로를 위한 기도의 끈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역시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덕목은 따뜻한 사랑과 포용, 겸손과 온정인 것 같습니다.



5. 그 외의 사역 보고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몇몇 필요로 하는 곳에서 설교를 해 왔습니다. 오카야마(岡山)교회, 다카쓰키히요시다이(高槻日吉台)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사카 지역에도 두 곳 정도 설교가 예정되어 있었습디만,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교회의 예배가 일시 중지되거나, 교회 행사가 취소되는 등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많은 교회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에 비하면 아직까지 매주 모일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본 교회도 주일 예배를 중지하는 교회도 있고, 주일 예배에는 위생과 환기에 만전을 기하면서 예배 시간을 단축하고, 다른 모임은 일시 중지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1월부터는 일본인 개척교회에서 월 1 회 정도 설교를 해 오고 있으며 교토남부교회의 양해를 얻어서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토쿠니(乙訓) 코이노니아'라는 이름의 6-10 명 정도 모이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재정이 여의치 않아 담임목사를 모실 형편이 되지 않기에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저의 섬김이 그 교회의 성장과 자립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 월 16 일 운동주시인의 기일에 맞추어 이원중 선교사가 일하고 있는 운동주추모회의 주최로 도시사대학 내의 운동주 시인 시비 앞에서 헌화식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시비가 건립된 지 25 년을 기념해서 일본 각지에서 운동주 시인을 기리는 모임의 대표를 초청하고, 운동주 시인 연구의 권위자를 초대해서 심포지움을 열 계획이었습디만, 역시 코로나 19 의 영향으로 계획했던 대로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아직 일본에서는 크게 유행하기 전이었기에 그래도 70 명 정도가 모이는 모임 자체는 가능했습니다. 아마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개최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운동주 시인을 기억하는 가운데, 한일간의 평화의 토대를 쌓기 위한 통찰력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 2 월 28 일에 KBS 에서 방영된 "130 년간의 한국 사랑-마포삼열과 그의 아들들"의 제작에 자료와 의견을 보냈습니다. 제작팀이 일본에 왔을 때 대표되시는 권사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국 근대사에서, 그리고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름없이 일해 오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젊음을 바쳐 한국을 위해 일하셨고, 죽기까지 한국을 사랑하셨던 마뻬트 선교사님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협력하면서, 선교사로서의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운동주 시인의 노래처럼,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덜 부끄럽게 저희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하겠습니다.

6. 새로운 관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본 선교 가운데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은 신실한 선교의 동역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협력이 없었다면 저희는 진작에 선교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소중한 선물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관계입니다. 저희 사역이 시작된 이후로 정착하기까지 큰 도움을 주어 오셨던 동서울교회가 교회 선교 정책의 변화로 저희들과 후원 관계가 정리된 이후로 소속교회가 없는 상황이 약 3 년째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 가운데, 창동 염광교회(황성은 목사님 시무)가 저희를 소속 파송선교사로 받아주셨습니다. 이로서 저희는 소속 문제도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다소 압박을 받고 있었던 재정 문제도 숨통을 톨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 월에 황성은 목사님 부부 및 주사랑교회 최정도 목사님 부부가 일본을 방문해서 저희들의 사역을 확인하시고 일본 선교의 비전을 함께 품어주셨습니다. 저의 소속 및 재정 문제는 기도 제목으로 부탁드립니다. 송구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심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7. 기도 제목

1)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 19 가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롭게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온 인류가 각자도생

가운데 서로를 배척하기 보다, 서로 돕는 가운데 약자들이 죽음으로 몰려 나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배려와 연대, 인내가 이기심과 거짓, 욕심에서 우리를 공생으로 이끌어 가는 것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 2) 2020 년에 맡겨 주신 도시사대학 캠퍼스 사역, 교토남부교회, 오토쿠니 코이노니아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지혜, 인격과 사랑이 열매 맺도록.
- 3) 이원중 선교사의 교수 및 연구 사역, 안미연 선교사의 한글교육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창의적인 일본 선교의 길이 열리도록.
- 4) 장남 이지용, 차남 이지민이 수험 생활 및 아오이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경험하고 아이들에게 가장 적절한 상급 학교 진학으로 이어지도록.
- 5) 올림픽이 연기되고, 코로나 19 에 대한 대응 가운데 일본의 정치와 시민 사회, 경제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변화되며, 한일간의 관계 또한 바른 역사 의식 속에 공정하게 정립되도록.
- 6) 이원중 안미연 선교사의 사역이 한일간 그리스도인들의 화해와 평화에 기여하고, 한국의 교회가 더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 7) 일본의 각 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역동적으로 증거하며,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계속해서 실천하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 말, 행동으로 사랑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할 수 있다면, 더 뜨겁고 신실하게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대에 넘치게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며, 오늘도 병마와 최전선에 싸우는 이들을 격려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는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저희들도 기도합니다.